

총 6만 3천평 규모, 569억원 투입, 도시공원 4개 조성 군민 힐링공간, 강화에도 도시공원 탄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 갑룡공원을 시작으로 4개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군민들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 친구, 연인 또는 혼자 공원을 찾아 여유를 즐기고 있다.

강화군에는 어린이공원인 갑룡공원과 근린공원인 관청·남산공원, 역사공원인 북산공원이 있으며, 공원마다 주제와 색깔을 갖고 있다. 공원별 특색을 살펴보고 찾아가 느껴보자.



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첫 공원 탄생... '갑룡공원'

갑룡공원은 강화읍 갑곶리에 18,605㎡(5,628평)의 규모로 강화군에 탄생한 첫 도시공원이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복합체험 힐링공간'을 주제로 물놀이시설, 운동시설, 석가산 등을 조성해 많은 주민들이 찾으며 휴식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특히, 여름철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과 헬스장 버금가는 운동기구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공원을 확장해 지난 6월 개장했다. 1단계 조성 시 다소 부족했던 놀이시설을 추가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가득하다.



남산근린공원 음악분수

시원한 경관과 화려한 분수쇼... '남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방치돼왔던 남산근린공원이 지난해 3월 개장했다. 많은 주민들이 등산하고 있는 남산과 이어진 남산근린공원은 103,240㎡ 규모로 일과 삶이 공존하는 워라벨 숲 향유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산책로를 걸으면 읍내 한복판이 내려다 보이며 시원한 경관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강화군 최초 '음악분수'가 설치돼 있다.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분수는 조명과 어우러져 알록달록 화려함을 뽐낸다. 남산근린공원의 경관과 분수를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어짐을 느낄 수 있다.



관청근린공원

풋살장, 케이블웨이 등 가족 피크닉 최적 '관청근린공원'

갑곶리와 관청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관청근린공원은 남산근린공원과 더불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 지난해 3월 82,661㎡의 규모로 조성됐다.

관청근린공원은 '온 가족 힐링 숲'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조잔디로 포장한 풋살장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산성놀이터에는 케이블웨이, 네트놀이대 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곳곳에 휴게시설과 데크를 설치해 가족과 함께 운동도 즐기고 나들이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원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자... '북산역사공원'

북산 벚꽃길을 오르는 길에는 북산역사공원이 있다. 10,090㎡의 규모로 산책로와 전망 정자로 구성돼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정자에 앉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읍내를 내려다보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 준다.

공원이 주는 여유로움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고, 일상에 지친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공원은 군민들 곁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하며 늘 곁에 있는 친구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조성 될 길상공원을 통해 남부지역에 또 다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祝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사로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 천 호
강화군수

반갑습니다. 강화군수 유천호입니다.

우선 강화투데이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알 권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신봉기 대표님과 구성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강화투데이는 지역의 곳곳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부터 지역의 각종 현안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공정한 시선으로 건전한 비판과 비전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풍요로운 강화'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사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강화군수 유 천 호

祝辭

강화투데이 창간2주년을 축하합니다!

박 승 한
강화군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의회 의장 박승한입니다! 『강화투데이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을 대변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언론의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진실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신봉기 대표님을 비롯한 강화투데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투데이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역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강화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화투데이는 강화의 미래를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소망을 듣고, 그들의 다양한 이슈와 관심사를 공감하며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소개하며 지역 사랑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2주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강화투데이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시야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듣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여 더 나은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투데이의 미래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화군의회는 언제나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강화군의회 의장 박 승 한

祝辭

강화투데이 창간2주년을 축하합니다!

박 용 철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강화투데이 창간 2주년을 7만 강화군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화투데이는 정론·직필을 지향하는 참다운 지역신문이자 민의(民意) 대변자로서, 그간 지역발전과 올바른 지역 언론을 선도하였습니다. 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무단

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삶과 아픔을 함께하고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축을 도맡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화투데이가 지역 의제 설정자이자 감시자로서 지역 문제와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강화투데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시의원 박용철

祝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사로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 성 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며 오늘을 열어가시는 강화투데이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내고 강화의 변화를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봉기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강화투데이의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강화'라는 두레상에 둘러앉아 한솥밥을 나누는 따뜻한 정경을 느끼게 해주는 매체입니다. 특히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의 역사문화기행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의 깊이 있는 탐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화투데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디어 생태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중추 언론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의 교육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도하며 학생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화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라는 교육의 두레상이 더 따뜻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학교마다의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성공하는 교육,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강화교육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따뜻한 시선으로 삶과 관계를 바라보고 강화 지역사회의 자람이 되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창간 2주년을 맞이한 강화투데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

더 나은 강화, 풍요로운 강화로의 교두보로서 지역언론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존경하는 강화투데이 애독자 여러분!

강화투데이의 창간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강화투데이를 묵묵히 지지해주신 애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에 힘을 얻어 강화의 소식을 가감없이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지로서 애독자 여러분이 신문사의 완전한 주체임을 인식하며 다시 태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2021년 8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해를 거듭하며 강화의 역경은 물론, 발전을 지켜보며 기사 한 줄 한 줄 속에서 더욱 애향심 가득한 우리네 모습을 지켜보는 지난 2년은 제게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어느새 우리 군의 밝고 명쾌한 곳은 물론, 읍지 구석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함께 울고 웃으며 풍요로운 강화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 소식은 물론, 저희 강화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당면한 과제와 실태를 파악, 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도를 견지하여 저울의 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편협한 시각을 주의하되, 강화인의 입장에서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이 가져야할 자세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강화발전사업을 더욱 알리고 독려하는 기사, 복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살피는 강화인의 노력을 격려하는 기사,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치기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보호막이 되어줄 기사를 통하여 독심있고 묵묵한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투데이의 역할은 우리 군의 합심된 마음을 잇는 가교의 역할로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알리는 의무를 넘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강화인의 마음을 활자로서 전달하는 것이며, 분쟁의 씨앗을 발빠르게 알려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림으로써 소통하는 강화, 하나된 마음의 강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강화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의 개발되는 일련의 과정과 변모하는 모습을 군민들과 함께하고 단지 지역안에서의 언론에 그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강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선봉장의 역할로 이어 나가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기위해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과 신뢰 가득한 내용으로 다음 1년과 다음 10년을 준비하여 우리 강화의 진정한 지역언론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과 강화군청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고 독려해 주시는 주위의 모든 고마운 분들께 창간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바른 시선과 날선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희망등대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욱 발전된 강화투데이의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강화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강화투데이 발행인 신봉기

강화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 12월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

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강화군청 경제교통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제3장학관, 9월 개관예정, 입사생 115명 모집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9월 개관 예정인 강화군 제3장학관 입사생 115명을 모집한다.

강화군 제3장학관은 서울 동대문구(회기로 18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568㎡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로 117실을 보유하고 있다.

입사 자격은 현재 부 또는 모가 강화군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원) 입사생 및 재학생으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자격 충족하는 경우 별도 추천 절차 없이 선발되며, 선정 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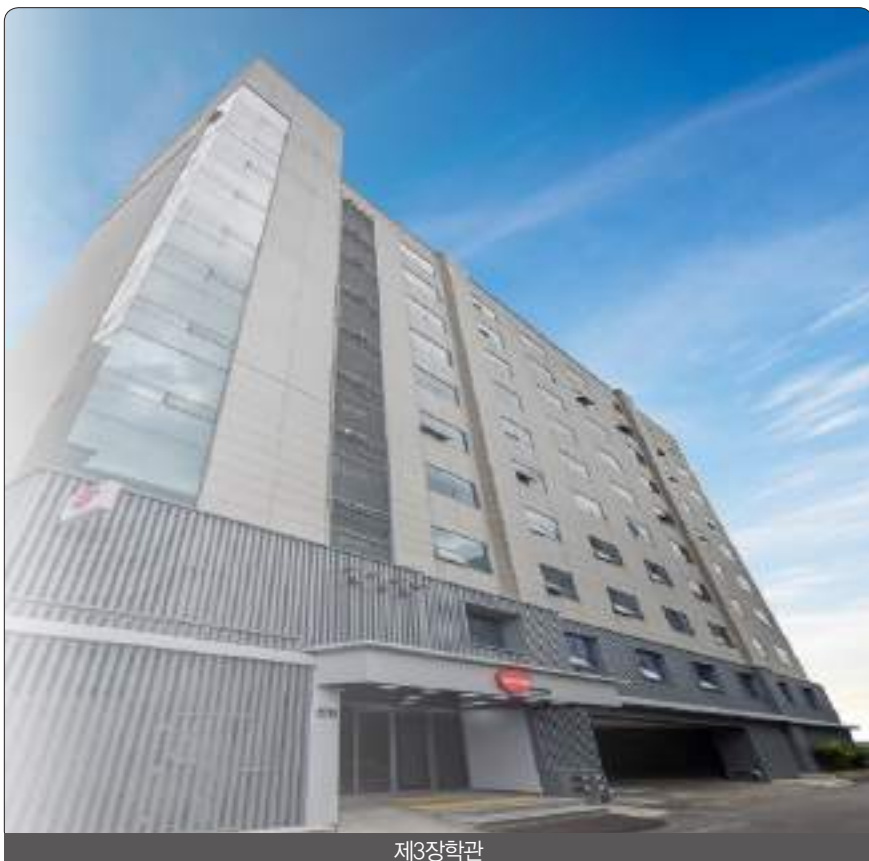
개별 통지된다.

수용인원 충족 시까지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입사를 원할 시 군청 자치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hedu@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화군은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제1장학관과 서울시 중구 소재 제2장학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 소재 제3장학관과 더불어 인천 연수구에 제4장학관도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기자



제3장학관

■ 선발인원 : 115명

※ 남녀 구분 분리 운영으로 성별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접수기간 : 2023. 8. 18.(금) ~ 연중접수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9시~18시, 강화군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 이메일 접수 (ghedu@korea.kr)

■ 구비서류

1. 입사원서 1부 (강화군청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2. 재학증명서 1부 (유학생은 복학예정증명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관외고교 졸업자는 관내중학교 졸업증명서)
(신규입사생만 제출)
 4. 주민등록 초본 1부 (부 또는 모의 최근 2년간 주소 이력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1부
- ※ 공고일 (8.18.)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참고]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930-3328, 3329

강화군,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적발 시 강력 처벌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8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 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롯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민간과 합동으로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군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 및 전통시장, 어항 내 수산물 점포, 일반음식점(횃집) 등이며, 주요 점검 품목은 국내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군민 신뢰를 지속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원산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1]

섬 체류형 관광상품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 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섬 체류형 관광상품인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했다.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는 주문도와 불음도 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각 섬만의 특색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본 상품은 1박2일 주문도 코스와, 2박 3일 불음도 코스로 나뉘어 운영한다. 강화 풍물시장에서 저녁에 먹을 찬거리를 직접 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문도에서는 농활 체험을, 불음도에서는 상합캐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두 섬 모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동행하며 해설을 해주는 ‘마을투어’ 체험과 노을이 멋진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주문도와 불음도는 강화군에서 유일하게 배를 타고 접근하는 섬으로, 많은 천혜의 자원이 숨겨져 있다”며, “모래로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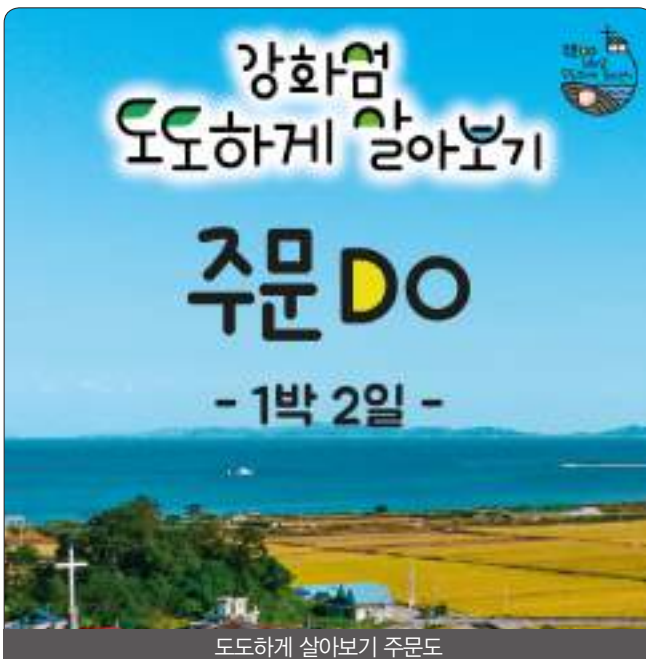
있는 갯벌이나, 저어새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서도면의 매력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가기는 카카오편지에서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를 검색하여 예약·체험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화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 운영 사무처(032-468-5437)로 하면 된다. [1]

- 최백하 기자



도도하게 살아가기 불음도



도도하게 살아가기 주문도

강화군 마을주택관리소,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4일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창호 교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은 7가구를 대상으로 마을

주택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교육 이수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추진한다.

마을주택관리소는 군내 노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관리소로 집수리 서비스 자원봉사자 양성과 주민들의 자활 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셀프집수리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셀프집수리교육을 실시해 수료생 37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수리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집수리 지원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 부모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사용승인(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 여건이 취약한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 지원과 쾌적한 마을 환경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집수리 지원과 군민들에게 자력 보수를 위한 집수리교육과 공구 대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강화군도서관, 하반기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제공

강화군도서관은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의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도서관에서는 ▲문인화 교실 ▲서예 교실 ▲여행스케치 ▲어반스케치 ▲캘리그래피와 지우개 스탬프 ▲동시와 동화로 배우는 세계의 위인 수업을 운영한다.

강좌명	대상 및 모집인원	일시	장소
문인화 교실	성인 15명	매주 화요일 10시-12시	세미나실, 문화교실
서예 교실	성인 15명	매주 수요일 9시 30분-11시 30분	세미나실, 문화교실
여행스케치	성인 15명	매주 수요일 14시-16시	세미나실, 문화교실
어반스케치	성인 15명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세미나실, 문화교실
캘리그래피와 지우개 스탬프	성인 14명	매주 금요일 10시-12시	세미나실, 문화교실
동시와 동화로 배우는 국내의 위인과 문화유산 이야기	초등 2-4학년 15명	매주 토요일 14시-16시	세미나실, 문화교실

지혜의 숲 도서관에서는 ▲그림책 마음 여행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감성 수채 캘리그래피 ▲인문학 영화와 만나다 ▲인물화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강화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혜의 숲 도서관은 정원 충족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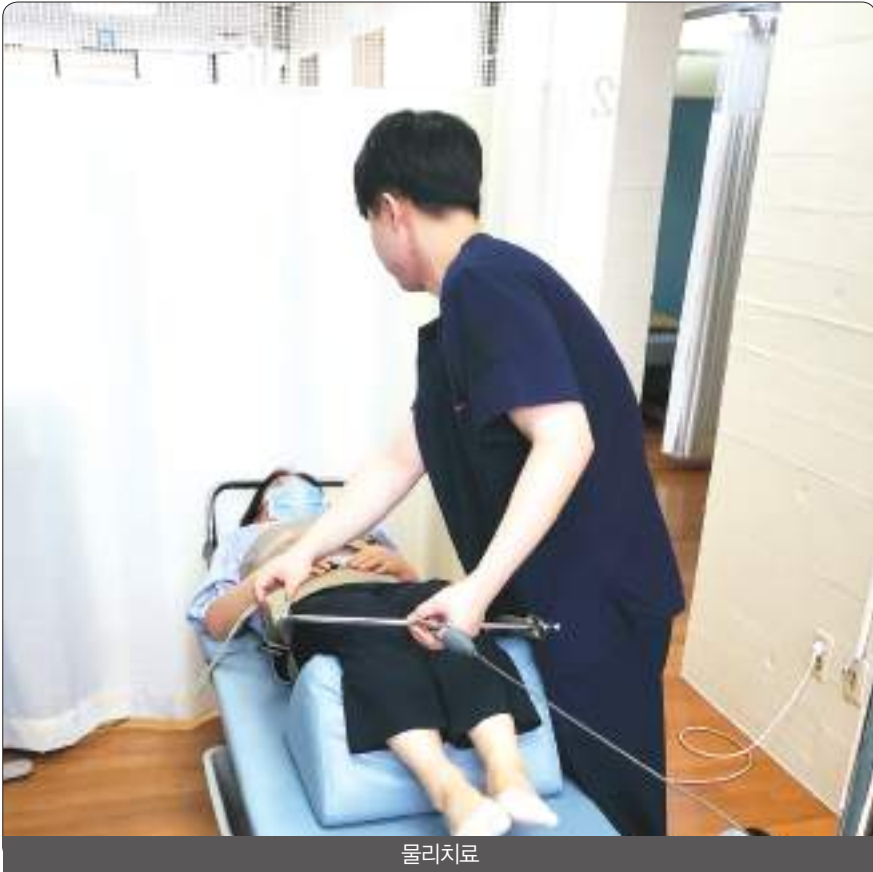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도서관 홈페이지 및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도서관에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대면 형식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의 공간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프로그램명	대상 및 최소 모집인원	장소	기간	요일, 시간
친구와 함께 "그림책 마음 여행"	초등 1-2학년 15명	병음공간	2023.09.09. - 12.02.	매주 토요일 10-12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그림책 읽으며 찾아봐요)	초등 3-4학년 12명	학습공간	2023.09.02. - 11.25.	매주 토요일 10-12시
감성 수채캘리그래피	성인 15명	병음공간	2023.09.04. - 11.27.	매주 월요일 10-12시
인문학, 영화와 만나다 II	성인 15명	병음공간	2023.09.06. - 11.22.	매주 수요일 14-16시
인물화(오일파스텔)	성인 15명	병음공간	2023.09.04. - 11.27.	매주 월요일 14-16시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물리치료 건강교실 운영



물리치료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강화군보건소에서 ‘물리치료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물리치료 건강교실은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해 통증 및 구축을 완화하고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움직임 및 자세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대상이다.

물리치료 건강교실은 공보의(한의사)와 함께 12월 13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체간의 안정화 운동, ▲체간의 움직임 만들기, ▲손가락 움직임 만들기, ▲상지 패턴 운동, ▲하지 패턴 운동, ▲체중부하 운동 교육이 차례로 진행된다.

물리치료사는 수강생 중 뇌병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을 파악해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 또한, 물리치료사가 직접 바른 움직임과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잡아주며 함께 운동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성명서

**강화뉴스의 계속되는 악의적 편파보도와 강압적 취재 및 ‘아니면 말고’식 고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시정될 때까지 일체의 취재 요구를 거부한다!**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강화뉴스의 왜곡된 편파보도와 비상식적인 자료 요구, 강압적 취재, 공직자에 대한 연이은 고발 등 언론으로서 상식의 수준을 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균정업무 방해 및 공무원 괴롭힘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자 한다.

강화뉴스는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강화 군정에 대해 860여건에 달하는 부정적인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들에 한 건풀이며 긍정적인 기사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보도 행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언론으로서 균형감과 객관성을 상실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도 없는 정보공개 요구와 협박에 가까운 강압적 취재 등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취재 방식은 균정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이며, 강화군 공무원들의 시달림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오죽하면 직원 2명은 질병휴직을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뉴스와 몇 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뉴스는 수십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이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취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답하라”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제기한 고발건 중 2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인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을 남발하는 언론에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강화뉴스의 이런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될 때까지 일체의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 취재를 핑계로 공무원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이 있을 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3. 8. 28.

강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 일동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꿈나무들의 세상 둘러보기' 행사 개최



꿈나무들의 세상둘러보기 _ 화개정원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경)에서는 지난 17일 '꿈나무들의 세상 둘러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꿈나무들의 세상 둘러보기' 행사는 회원들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관광명소가 된 교동 화개정원과, 교동 대룡

시장,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를 찾아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교동 화개정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화개산 전망대에서 서해바다와 북한 황해도를 조망했다. 인근의 교동 대룡시장을 방문해 골목골목 옛 모습을 간직한 시장을 관람하며 전통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했다.

이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포츠 체험을 위해 강화씨사이드리조트로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고 루지 탑승장으로 올라가 카트를 타고 트랙을 달리며 속도감과 스릴을 만끽했다.

김미경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체험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아동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해 준 강화군 여성 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양한 체험을 계기로 아이들이 더욱 넓은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아기와 엄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맞춤형 모자건강교실' 운영



모자건강교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내달 5일부터 강화군보건소에서 '맞춤형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강화군보건소 모자교육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모자건강교실'은 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모유 수유교실과 영유아의 발달을 돕기위한 해피맘 육아교실 프로그램을 말한다.

모유 수유교실은 ▲행복한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모유 수유의

효과성 ▲올바른 젖 물리기의 자세와 횟수 ▲산후 건강관리 등 예비 엄마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피맘 육아교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반을 나누어 ▲베이비 마사지 ▲오감발달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도 모자건강교실은 강화군보건소 모자교육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내달 1일까지 신청을 받고 5일부터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모자건강교실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 총32회 진행하였고, 377명이 참석했다.

만족도 조사결과 프로그램 내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6.7%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참여자 전원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변하는 등 유익한 프로그램임을 확인됐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문의(☎032-930-4045, 4067)하면 된다 ▣

유천호 강화군수 건의, 인천시장 전격 수용

강화군, 2024년부터 농어민들 年 60만원 수당 받는다!

재정분담율도 시비 70% 확대, 군비 13억원 절감



보장제도 신설 승인 등 행정절차상 문제로 수당 지급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지난 18일 유천호 강화군수는 인천시장을 면담해 기초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적 부담을 넘어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통크게 전격 수용하여 내년부터 인천시 농어민들도 공익수당을 지급 받게 된 것이다.

시비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강화군은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다양한 농어업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인천시의 결정에 우리 강화군 농어업인들을 대표해 적극 환영하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공익수당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내년부터 강화군 농어업인 11,000명이 年 60만원씩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의「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

강화군, 김장채소 적기 파종 지도

파종적기 순무 8월 중순에서 하순, 배추묘 8월 하순에서 상순



김장채소 적기파종

합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랑을 만들기 전에 포장 전체에 밑거름과 토양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

순무의 파종 적기는 8월 중순에서 하순경이며, 배추묘의 정식 적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다. 파종과 정식작업은 흐린 날 오후에 하면 뿌리 활착이 빨라 생육에 좋다.

또한, 밭을 깊이 갈아서 흙을 잘게 부수어 뿌리가 잘 뻗어 내려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배 및 관리를 양호하게 하려면 파종기를 이용하여 점파 후 밭에 빈 곳(결주)이 없도록 한 곳에 3~5립씩 파종한 후 2~3회 솟아주는 것이 좋다.

배추 정식은 모가 너무 크면 초기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파종 후 15~20일정도 길러 잎이 3~4개 정도 자랐을 때(8월 하순경) 흐린 날 오후를 선택해 본 밭에 옮겨 심는 것이 좋다. 심는 깊이는 모를 기를 때 심어졌던 깊이만큼 심어야 활착이 빠르고 초기 생육이 양호하다.

육묘상 관리는 육묘하우스나 묘판에 터널을 만들고 한랭사를 설치 진딧물류, 나방류 등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충이 발생될 때에는 7~10일 간격으로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품질 좋은 김장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중점 보급하는 등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장에 맞는 기술적 대책 강구로 고품질 김장채소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김장채소의 적기 파종과 정식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용 순무, 배추 등 김장채소의 파종 적기는 8월 중순부터 하순경으로 가을 재배 시 너무 일찍 파종하면 바이러스 및 뿌리마름병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제때 수확이 어려워진다.

품질 좋은 김장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양관리와 비료 공급이 중요하다. 정식할 포장은 아주심기 10~15일 전에 완숙퇴비나 석회, 붕사 등을 포장 전체에 뿌린 후 트랙터 등으로 갈아 흙과 잘 혼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내년 정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아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인천시, 최대 3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 추가 지원 8.28.(월)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이후 2년 1.5%)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675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 (1단계) 250억원('23.4월), (2단계) 450억원('23.5월), (3단계) 225억원('23.6월), (4단계) 675억원('23.8월)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이자지원) 3년(최초 1년 2.0%, 2~3년 1.5%) (지원한도) 최대 3,000만원 (상환기간) 6년 (부담금리) 변동금리 : CD(91일)금리 + 1.9%(가산금리)

*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과의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고(고

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8월 28일(월)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방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온라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 최백하 기자

지원규모	675억원	시행일자 : 8월28일 9시부터 예약가능 (신청순 포함)
지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미리신청비교대상)	
상환기간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재단홈페이지 내 「희망인천신청」 예약 필수 ☐ 예약없이 지점에 방문하시면 해당 자금을 신청받으실 수 없습니다. ☐ 희망인천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본 신청은 보증신청예약후의 「희망인천신청」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보전	최초 1년간 2%, 이후 2년간 1.5% 지원	
금융회사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칼럼

정치 9단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바둑계에서 9단은 ‘입신(入神)’으로 불린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둑 사관학교 격인 연구생제도가 정착된 뒤 탄탄한 기량을 갖춘 입단자(초단)들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초단이 9단을 이기는 경우가 빈번해 오히려 “9단이 초단을 이기면 이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초단은 ‘수졸(守拙)’로 불리는데, 겨우 자기 집이나 지킬 정도라는 뜻이다. 그런데 집에 머물지 않고 밖에 나가 신을 이기니 이보다 더한 반전은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9단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치권 막전막후를 주름잡으며 일찍이 정치 9단 반열에 올랐던 박지원 전 의원이 고향인 전남 진도에서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때문에 그 지역에서 표밭을 가꾸던 정치 신인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80세가 넘는 그는 국회의원(3선),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문화체육부), 국정원장 등 화려한 공직을 두루 거쳤지만 아직도 미련이 많은 것 같다.

그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자신의 텃밭인 전남 목포에 출마했지만 정치신예인 김원이 후보에게 많은 표차로 패배했다. 박지원의 나이로 볼 때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관운을 끝내지 않았다. 그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정원장으로 발탁돼 2년간 재직했다.

그 뒤 정치평론가로 탈바꿈해 TV 시사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며 또 다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필코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범부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역시 출세하는 사람을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순진한 짓이다. 그래서 ‘범부’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TV에서 “지금까지는 국가를 위해 봉사했지만 마지막으로 고향에 봉사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의 정치 여정을 돌아보면 과연 ‘봉사’ 했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출마하더라도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이 그나마 명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총선은 정치 9단들의 무덤이었다. 천정배 의원은 7선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고, 2007년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의원은 5선 길목에서 쓴맛을 봤다. 정동영(전북 전주)과 천정배(광주 서구)는 자신의 안방에서 무명에 가까운 후보에서 완패당했다.

또 당시 최다선(8선)이었던 서청원 의원도 9선에 실패했으며, 5선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자신을 키워준 경기 안양에서 외면받았다. 이 외에도 정치 9단이 초단급에게 패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정치를 그만둘 때가 됐다는 유권자들의 신호일 것이다.

나이도 나이지만 정치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이들 중 상당수는 정가를 떠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정은 판판이다. 정동영 전 의원은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건 노선이지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나이로 정치 적합성 여부를 따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이다.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동영은 지난 총선 전날 “이번 총선이 마지막 선거”라고 배수진을 쳤으나,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는 “(향후 진로는) 천천히 생각하겠다”며 말을 바꿨을 때 이미 예상된 행보다.

역시 대표적인 정치 9단으로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서구 출마가 유력하다. 천정배는 “2년 뒤에(2022년 대선) 호남대통령 못 만들면 정계은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홀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다”며 586세대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마당에 그들보다 윗세대 인물들의 재등장에 탄식이 나오고 있다.

9단은 9단다워야 한다. 바둑 9단은 비록 기술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려도 품격은 유지해 후진들이 어려워 한다. 하지만 정치 9단은 어떤가. 귀감이 되기보다는 노회함과 변신의 처세술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된 데는 누구보다 9단들의 책임이 크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고구려를 침략한 중국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인용한다.

“그대의 귀신같은 꾀는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神策究天文)

기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네(妙算窮地理)

전쟁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戰勝功既高)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知足願云止)”



기고

이경수

강화유수 이안놀과 벗 이야기



강화전쟁박물관 비석군

비석치기

갯곶리 강화전쟁박물관 마당에 옛 비석이 수두룩 모여있습니다. 대개가 조선시대 수령의 선정비입니다. 선정비를 불망비라고도 해요. 백성들이 그 지방에 부임했던 지방관의 선정을 고마워하며,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세운 비가 선정비, 불망비입니다.

선정(善政)이란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린 정치’라는 뜻이요, 불망(不忘)이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니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선정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선정을 베푼 지방관이 많았다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례로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성을 괴롭혀 원성이 자자했던 수령의 선정비도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선정비 세우는 비용은 백성들에게 걷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기도 해서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수령이 자주 바뀔수록 백성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1859년(철종 10), 철종이 엄히 명합니다. “수령들의 임기를 모두 채우게 하라.” 철종은 수령이 자주 바뀌면 영송(迎送, 맞음과 보냄)에 폐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폐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정비 세우는 거고, 그 비용 대기에 백성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악정(惡政)을 펼친 수령의 선정비는 주민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몹시도 백성을 쥐어짜던 수령, 그를 잊고 있다가도 선정비를 보게 되면 울화가 치밀겠지요. 비석에 슬쩍 돌을 던지며 욕할지도 모릅니다. 장난감 귀하던 우리네 어린 시절, ‘비석치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비석치기가 못된 수령의 선정비에 몰래 기와 조각이나 돌을 던지면서 시작된 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사·부윤·유수, 이안놀

강화전쟁박물관의 저 많은 선정비 가운데 강화 주민들이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다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안놀 선정비는 ‘진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안놀 선정비는 두 개입니다. 비문을 확인해보면, 두 개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620년(광해군 12)에 세운 선정비는 行府尹李公安訥淸德善政碑(행부윤이공안눌청덕선정비)라고 새겼고요, 1631년(인조 9)에 세운 선정비는 留守李公安訥氷淸玉白恩愛將卒大開軍營不忘之碑(유수이공안눌빙청옥백은애장졸대개군영불망지비)라고 새겼습니다. 부윤으로 한번, 유수로 한번, 이렇게 두 번을 강화의 수령으로 근무해서 선정비가 두 개인 겁니다.

조선 초 강화도는 고려 말 이래 부사(府使)가 다스리는 강화부였습니다. 1413년(태종 13)에 강화부의 명칭이 강화도호부로 변경됩니다. 이때 수령을 도호부사라고 했는데 줄여서 그냥 부사라고 했습니다. 1618년(광해 10)에는 강화도호부의 수령이 도호부사에서 부윤(府尹)으로 바뀝니다. 그랬다가 1627년(인조 5)에 강화유수부가 서면서 수령도 부윤에서 유수로 바뀌 부르게 됩니다.



명륜당 창건비(강화향교)



이안놀 유수 선정비(강화전쟁박물관)



적석사 전경



정수사

이안눌은 1617년(광해군 9) 6월에 강화부사로 임명됩니다. 강화부사로 근무하던 1618년(광해군 10) 6월에 광해군이 강화 수령을 부사에서 부윤으로 올리면서 열떨결에 초대 강화부윤이 됩니다. 1628년(인조 6)에 비변사에서 인조에게 청하기를, “이안눌이 일찍이 본부의 부윤이 되어 능하다는 명성이 있어서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리워하고 있으니” 강화유수로 삼자고 합니다. 인조가 비변사의 뜻에 따라 이안눌을 강화유수로 보냅니다.

동악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은 1599년(선조 32), 29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아갔습니다. 지방 수령을 여러 곳에서 오래 했어요. 학자이자 관료이자 대문장가였습니다. 특히 시를 잘 지어 이름이 높았어요. 석주 권필처럼 말이지요.

시로 읽는 이안눌

이제 이안눌의 시를 통해 그가 어떤 수령이었는지 짐작해봅니다.

담양부사 마치고 담양을 떠날 때 지은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토호들은 밀면서 갔으면 하고 / 백성들은 당기며 머물렀으면 하네 / 강한 이들 혈뜰음이 다투어 일고 / 약한 이들 눈물이 줄줄 흐르네” 임기 끝나서 돌아가는 부사. 백성들은 울며 안 갔으면 하고, 지역 양반 세력가들은 어서 가라며 욕합니다. 이안눌이 어느 편에 서서 부사 직을 수행했는지 알만합니다.

강화에서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밥을 넘기는 게 죄스럽다, 강화 백성들 죽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보게, 내게 밥 많이 드시라 말하지 말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 굶주리고 있지 않은가 / 차라리 내 몸의 피를 빼내어 / 그대의 손가락에 떨어뜨려서 / 늙은이 어린이 모두 맘껏 마시면 /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겠지”

굶주리는 강화 백성을 걱정하느라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하는 수령 이안눌의 마음, 제 피를 뽑아 백성에게 주고 싶다는 절절한 수령의 심정! 현재의 강화도 주민이 과거의 이안눌 강화유수에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의 느낌과 그 글을 쓴 사람의 언행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안눌 부윤이, 이안눌 유수가 강화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했다는 걸 믿습니다.

이안눌을 알려주는 옛비가 또 하나, 강화향교 앞마당에 있습니다. 몸돌 받친 거북돌이 수백 년 풍상에 동글동글 닳았어요. 비문도 마모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비문이 기록으로 따로 전해지는 덕분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留守李公安訥創建明倫堂碑(유수이공안눌창건 명륜당비)입니다. 강화유수 이안눌이 강화향교 명륜당을 새로 지은 내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봅니다.

나쁜 세상 사는 게 한스럽지 않으나
귀가 있음은 한스럽구나

그대 죽었다는 소리 들어야 하니

나쁜 세상 사는 게 한스럽지 않으나
눈이 있음은 한스럽구나
다시는 그대 볼 수 없으니

이안눌이 남긴 시의 번역문을 살짝 윤문했습니다. 이안눌은 ‘그대’가 죽은 걸 몹시 서러워합니다. 귀가 한스럽고 눈도 한스럽습니다. ‘그대’를 위한 애도 시를 이 한 편만 쓴 게 아니에요. 매일 매일 생각하고 눈물지으며 오랜 세월 오래도록 수십 편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랬을까. 이안눌의 ‘그대’는 어떤 여인일까요?

여인이 아닙니다. 권필입니다. 지난 호에서 이야기했던 그 석주 권필입니다. 이안눌은 권필의 죽음을 알고 처절하게 슬퍼합니다. 권필을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라고 했고 심지어 동심인(同心人)이라고도 했습니다. 동심인!

둘의 우정은 열 살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놀 때도 같이 공부도 같이. 마음마저 실과 바늘이었습니다. 권필이 강화로 온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이 오갔어요. 권필은 관직 생활하는 이안눌을 늘 격려하고 성원했습니다. 둘은 상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슬픔도 물론 그랬고요. 진짜 평생 친구였습니다. 권필은 이안눌을 정 깊은 유일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 하늘로 보내고 땅에 홀로 남은 이안눌이 이런 시도 지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홀로 솟은 산 꽃비가 내리고
백팔 개의 염주 꿰어 잡고 좌선에 드네
뜬세상 마음 상한 슬한 사연 끝이 없고
홀로 남긴 글귀 읊조리며 시선(詩仙)을 떠올리네.

‘바다 가운데 홀로 솟은 산’은 어디일까요. 마리산입니다. 시에 ‘염주’와 ‘좌선’이 나오니 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수사입니다. 이안눌이 시간 쪼개 정수사에 갔습니다. 백련사도 가고 적석사도 가고 전등사도 갔습니다.

산사를 찾은 중요한 이유는 권필의 흔적 찾기! 권필이 다니던 절을 찾아 권필과 어울리던 스님들에게 권필 얘기를 청해 들었습니다. 권필이 산사에 남긴 시를 받아 읽으며 추억했습니다. 위 작품은 이안눌이 정수사에 가서 권필이 지어 남긴 시를 받아 읽고 지은 시입니다. ‘시선(詩仙)’은 권필을 가리키는 것이겠네요.

나이 먹어갈수록 친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한자로 ‘人’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혼자서 제대로 서기 어려워 누군가와 서로 의지해서 선 모양새입니다. 그 ‘누군가’는 연인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많음은 자랑할 게 못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둘이면 족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한동안 잊고 있던 친구가 떠올랐나요? 그렇다면.

“잘 지내지?” 카톡! 📱

강화군가족센터, 1인 가구 마음치유 지원 ‘플라워아트’ 운영



강화군가족센터, '플라워아트'

강화군가족센터에서는 마음치유 심리상담을 위한 ‘플라워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개인 및 집단상담, 아로마테라피, 플라워아트 등을 진행하며, 1인 가

구의 사회 참여 증진으로 고독·고립 방지와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난 8월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8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총 4회 진행되며, 현재 1인 가구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꽃다발, 테라리움, 리스 등을 만들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따뜻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건강 돌봄, 식생활 개선, 안심케어, 긴급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1인 가구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1인가구는 강화군가족센터 032)933-0980로 문의하면 된다. ▣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엄마의 따스한 손길로 수제청 만들기 봉사



엄마의 주방 봉사활동

강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동수)는 지난 28일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엄마의 주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청굴청, 인삼청, 딸기청 100병을 만들었다.

100병 중 비타민이 가득한 청굴청 50개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전달했으며 인삼청, 딸기청은 9월부터 시작되는 센터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토탈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정의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동수 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을 가꾸고 나눌 수 있도록 꾸준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아동·청(소)년
생명 존중
생명사랑
공모전 당선작**



캐릭터 최우수상(이다희)



포스터 최우수상(전해인)

한국소방 미니소화기 300개 기탁




한국소방 미니소화기 기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7일 한국소방(대표:이상훈)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미니소화기 3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은 저소득가구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휴대용 소화기를 기탁해 지역 내 저소득 20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하는 소화기는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내 장애우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화재사고가 많은 환절기를 대비해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기본 교육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불은면 새마을남녀지도자 따뜻한 성금기탁



불은면 새마을남녀지도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0일 불은면 새마을남녀지도자에서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진남 협의회장과, 최옥임 부녀회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불은면 새마을남녀지도자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해면 단체, 화재 피해 농가에 성금 전달



송해면 성금 전달

강화군 송해면(면장 한경진)이 지난 22일 화재 피해 농가를 위한 성금 38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이른 새벽 농기계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송해면 12개 단체(이장단, 노인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진흥후원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쌀작목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가 뜻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다. 또한, 단체장들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함께 전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경진 면장은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해 따뜻한 정을 보여 주신 여러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눔의 손길이 위로가 되어 일상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서해가든



TEL : (032) 933-8210

H.P : 010-5161-9057
010-4736-9057

서 정 애

계좌번호 | 농협 195-02-232050 (예금주 : 서 정 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519번지

아구탕 · 찜 추어탕 밴댕이 회무침 잡어탕
꽃게탕 · 찜 동태탕 된장찌개 김치찌개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책전문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